

14 |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귀를 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마 13 : 9).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하나님의 말씀은”(새 203장)

기 도 담당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 : 9~17

성경말씀 경청하기 말씀 해석을 통해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을 기준 삼아 듣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쟁을 위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공격하고 누르기 위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소리와 가르침들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들려야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리의 수가 많아지자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무리들은 해변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참 귀가 열려야 합니다(9절).

2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16절).



성찰하기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2~3년이면 배우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청은 평생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듣는 방식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판단하며 듣는 것, 질문하며 듣는 것, 조언하며 듣는 것, 감정이입하며 듣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자적인 의미의 듣기 방식은 감정이입하며 듣는 것입니다. ‘들을 청’(聽)은 여러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이해 보면 ‘듣는 것이 왕처럼 중요하고 열 개의 눈으로 보듯 상대방에게 집중해 상대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단하기 실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삶의 변화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밀을 깨달아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봉헌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새 204장, 통 379장)

오늘의 기도와 주기도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주기도로 마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맑은 영성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